

셀라 SELAH

헌금 전 이야기

“셀라”라는 표현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대화에 사용하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셀라”는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된 말로 시편에서만 71회 사용되었습니다. 그 정의와 기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잠시 멈추고, 침묵하고, 방금 읽은 내용을 성찰해 보라**는 표시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TV 리모컨의 “일시 정지” 버튼과 비슷한 셈입니다. 버튼을 누르고 잠시 생각하면서 조용한 시간이나 생각할 시간을 갖기도 하듯 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셀라의 순간이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한 멈춤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얼음이 언 곳을 운전해 봤거나 그 위에서 미끄러져 본 적이 있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마침내 차가 안전하게 멈추는 순간, 당신의 양손은 운전대 위에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또 지각한 이유를 뭐라 둘러댈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 셀라의 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더 생긴 것만 같네요. 사람들의 미소를 몇 번 더 볼 수 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게 되었네요.”

아마도 교회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셀라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등산을 하거나, 우리의 가슴에 잠든 아기를 안아보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에게 누군가 연락을 해 왔을 때가 셀라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잠시 멈췄을 때, 또 그들의 눈에서 우리의 멈춤이 어떤 의미인지 보게 되었을 때 셀라의 순간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이 우리의 현실이 된 이래로, 제가 믿기는, 수많은 셀라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췄고 마트의 선반에서도 필요한 식료품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우리가 의존하는 의료 시설에 병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셀라의 순간들을 통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실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 잠시 멈추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넉넉한 나눔과 연합감리교회가 서로 연결된 본성을 통해 우리 교회는 삶의 대부분을 위기 속에서 살아야 하는 많은 이들을 위한 사역을 지속해서 전개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음식 저장실이 비어있는 이들에게 지속해서 음식을 전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환자들을 도울 여력이 없는 곳에 의료 물자를 보냅니다. 교회와 지역 사회의 경계를 넘어 지원되는 우리의 헌금은 깊은 수렁에 빠진 이들을 돕고 지원하는 손길이 됩니다. 이는 모두 연합감리교인들이 나누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우리는 어느 한 교회가 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셀라의 순간이 되도록 하십시오.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에 빠진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회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